

도로위·빈 빌딩에 주택공급 박원순 부동산정책 실험 왜?

서울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발표...그린벨트 사수·부지 마련 어려움



북부간선도로 주택공급계획

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잡기에 나섰다.

박 시장은 26일 화일적인 일괄공급방식을 뛰어넘어 새롭고 실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며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남은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실험적인 방식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오사카의 게이트타워(Gate Tower), 독일 베를린의 슈랑겐바더 슈트라세(Schlagentader strabe), 프랑스의 리

인벤토 파리(Reinventer Paris)와 같은 혁신적 건축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북부간선도로 일체화 사업을 통해 신내C~중랑C 구간 도로 상부에 2만1500㎡ 규모 건물을 지어 1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가 인공대지 위 주택 사이의 터널을 관통하면서 지나가게 된다. 경의선 김길 끝과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등에서도 각각 300가구가 공급된다.

박 시장이 유럽 순방 중 밝힌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중요. 용산 등에서 처음으로 실행된다.

시는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

부 등에게 공급한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큰 방향이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 건물을 청년주택(255호)으로,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 일부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200호)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 혁신도 강조했다. 전원일터적인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 싱가포르의 인터페이스 같은 명품 디자인이 함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하나를 짓더라도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하겠다"며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소 실험적인 공급주택 방안이 제시된 것은 신규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인 상황에서 공급에 비해 부족한 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은 지난 7월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리리유 세계도시상 미디어퍼포먼스'에서 "여의도를 통로로 개발해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은 들쭉날쭉했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는 물론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데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시장은 기존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모습도 필요했다는 해석이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해부터 1회용컵 서울시청사 반입금지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1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점심시간에 홍보를 실시한다.

청사 출입구에는 1회용컵 회수통이 설치된다. 직원이나 시민이 테이크아웃 1회용 커피 등을 갖고 청사 안으로 들어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

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해야 한다.

시는 1회용품 없는 환경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다.

시는 또 회의실 안 음수대 설치, 이리수 병물 사용 금지, 매장 전용 다회용 컵(머그컵) 제공, 개인 머그컵을 가지고 올 경우 음료가격 할인(300원), 1회용품·비닐봉투 판매 금지, 재활용 에코백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스

서울택시 기본 3800원·심야 4600원으로 인상 확정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원안 가결...5년 만에 인상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에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간제(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요금도 4600원으로 오른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전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며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요금조정안을 마련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실제 요금 인상은 빠르면 내년 1월 말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안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으로 기존 3000원에서 800원이 인상된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기존 3600원에서 1000원이 올랐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 할증 적용시간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현행과 같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했다. 거리

요금은 151m당 200원,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 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에는 중형택시 인상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의 경우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파기되는 합의문 인천공항의 정규직화를 추진중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청사 로비에서 (노동자)해고 위협 및 일반 강행 정규직화 역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파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몸짱소방관 달력판매액 올해 9000만원

서울시 소방본부, 내년 1월19일까지 판매...중증화상환자지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조재호)는 지난달 9일부터 판매해온 '2019년도 몸짱소방관 달력' 관련 기부금 9017만원 전액을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20일까지 1만2099부가 판매됐다. 판매수익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합한 기부금액은 9017만원이다. 달력판매가 종료되는 내년 1월19일까지 모인 금액도 추가 기부된다.

기부금 전달식은 26일 오전 11시

부터 한강성심병원(영등포구 소재) 본관 휴게실과 화상센터 병실에서 열렸다. 몸짱소방관 달력 모델이 된 4명(중부소방서 박준화, 중랑소방서 오세봉, 강남소방서 황영규, 노원소방서 한정현)이 참석했다.

2015년부터 4년간 몸짱소방관 달력 기부금 혜택을 받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는 97명이다. 2015년 2명, 2016년 23명, 2017년 34명, 2018년 38명으로 확대되고 있다.

몸짱소방관 달력은 시민의 관심과



뜻있는 기업과 단체의 후원으로 시작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4만 2529부가 판매됐다. 달력판매를 통해 4억1818만원이 마련됐으며 전액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기부됐다.매년 평균 1만2000부 이상 판매됐고 연평균 1억2000만원 이상 기부되고 있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